

# 논란 많았던 문화전당 '미디어 월' 철거 후 이전

### 도청복원협의회 추진경과 보고회 이전 장소는 미정...추후 논의키로 2025년까지 498억 들여 6개동 복원 본관 앞 은행나무 박힌 탄두도 공개 탄흔 지도 만들고 DB도 구축키로

옛 전남도청 복원사업 과정에서 철거-준치 논란이 일었던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미디어월이 결국 철거 후 이전하기로 결정됐다.

옛전남도청복원협의회는 1일 광주시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별관에서 '옛 전남도청 복원사업 추진경과 보고회'를 열고 이같이 밝혔다.

협의회는 지난달을 끝으로 복원공사 실시계획을 완료했으며 공사 발주 인·허가 절차, 설계적정성 검토, 총사업비 조정 등 행정절차도 마무리했다고 전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복원공사는 이달부터 발주를 시작해 내년 7월에 착공, 2025년 6월에 마무리 될 예정이다.

총 사업비는 타당성제조를 거치고 물가상승분을 고려해 498억원으로 확정 및 확보됐다. 당초 사업비 243억원보다 95% 증가한 금액으로, 각각 공사비에 339억원, 전시공사비 111억원, 부대경비 48억원 등에 쓰일 예정이다.

복원 대상은 옛 전남도청 본관·별관, 도청 회의실, 상무관, 경찰국 본관·민원실 등 6개 동이다. 이중 도청별관과 경찰국 본관은 100% 원형보존이 아닌 '재탄복원'을 하기로 했다.

이중 경찰국 본관은 ACC 리모델링 과정에서 안전성 문제로 철골 구조물을 뒀던 뒤, 이에 맞춰 층마다 충고를 낮췄다. 협의회는 이 철골 구조물을 그대로 둔 채 충고를 다시 높이기로 결정했으며, 3층 충고가 3m-2m 수준으로 낮아지는 것도 감안하기로 했다. 또 도청별관은 측면의 문화전당 진입로를 살려 일부본관 복원하기로 했다.



광주시 동구 금남로 옛 전남도청 경찰국 본관 뒷면에 설치된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미디어 월'.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철거나, 준치나 논란이 일었던 미디어월은 결국 철거하되 다른 위치로 이전하는 것으로 결론이 났다. 다만 아직까지 구체적인 이전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협의회는 밝혔다.

미디어월은 지난 2017년 26억원을 들여 제작한 21×9m, 10×6m 크기의 대형 화면 2개를 결합한 것으로, 현재 옛 전남도청 경찰국 본관 뒷면에 설치돼 있다. 미디어월은 지난 5년 동안 ACC에서 제작한 콘텐츠를 상영하며 시민들과 소통하는 '창' 역할을 해왔다.

협의회 측은 "5·18 당시 존재하지 않았던 건축물이 전남도청을 가릴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미디어월을 철거하기로 했는데, 이에 ACC와 예술인들, 시민단체 등이 반대하면서 논란이 커졌다.

ACC 관계자는 이와 관련 "구체적인 이전 방안"에 대해서는 협의회 측과 아직 합의되지 않았으며,

추후 자세한 이전 부지 등에 대해 논의할 것"이라고 전했다.

보고회에서는 복원공사를 마친 뒤 내부에 들어설 전시 콘텐츠에 대한 계획도 나왔다.

전시 기본 방향은 '서사를 바탕으로 고증이 된 공간에 콘텐츠를 구현한다'는 것이다. 1980년 5월 당시 옛 전남도청에 배치됐던 물품과 사진, 영상, 음향, 그래픽, 실감콘텐츠 등을 다양하게 전시할 계획이다.

올해 안으로 전시에 쓰일 사진·증언·구술채록 자료를 수집·확인·분석하는 과정을 마치고, 2023년 12월까지 각 공간별 세부전시 계획안을 세울 방침이다. 본격적인 콘텐츠 제작은 2024년 시작돼 2025년 개관과 함께 선보일 예정이다.

복원 이후 전시 콘텐츠 운영 주체나 활용 방식에 대해 협의회는 "당장은 복원 사업에 집중한다"며 논

의를 진행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옛 전남도청 본관 앞 은행나무에 박혀있던 탄두도 이날 새로 공개됐다. 지난 5월 '옛 전남도청 탄흔 특별전'을 개최한 이후 두 번째 공개하는 자리다.

도청 탄흔조사는 아직 진행형이다. 지난 2020년 7월부터 2021년 3월까지 1단계 기초조사를 거쳐 535개 의심 탄흔을 확인했고, 2021년 12월부터 올해 7월까지 1차 정밀조사를 실시해 탄흔 265개에 대한 조사 분석을 마치고 탄두 13발을 발견했다.

조사 마지막 단계인 2차 정밀조사는 지난달부터 시작돼 내년 10월까지 이어진다. 국립과학수사원과 연계해 탄흔을 검증하고 보존처리하며 탄흔 지도, 데이터베이스(DB) 등을 제작할 방침이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의사가 왜 이래...

### 진료기록부 거짓 작성하고 진료도 않고 검사비 챙기고 보험료 꼴딱...징역 2년6개월

진료기록부를 거짓으로 작성해 보험료를 빼먹고 진료를 하지도 않고 검사비를 받아 챙긴 60대 의사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형사7단독 전일호 부장판사는 사기, 의료법위반, 국민건강보험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의사 A(61)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일 밝혔다.

광주에서 자신의 이름을 건 내과를 운영하고 있는 원장 A씨는 2018년 1월부터 2019년 11월 말까지 총 248회에 걸쳐 환자들의 대장 내시경 검사를 하면서 '결장경검사 내시경하생검'을 시행했음에도 '결장경하 중앙수술(폴립절제술)'을 시행했다고 거짓으로 진료기록부를 작성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렇게 거짓으로 작성된 진료기록부로 같은 기간 동안 요양 보험급여 총 6700여만원을 부정한 방법으로 타년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장티푸스 검사사약을 공급받지 못해 건강진단결과(보건증)를 발급할 수 없음에도 2019년 4월부터 내원한 환자들에게 검사를 진행하지도 않고 '이상없음' 판정을 내려 검사비 명목으로 34만여원을 편취한 혐의도 있다.

또 지인들에게 독감예방접종을 구입해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고금리의 이자를 약속하며 3억2000여만원을 빌려 편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A씨가 투자금을 회수하지 못해 자금난을 겪게 돼 범행을 저지르게 됐다며 변명하고 책임을 떠넘기고 있는 점, 불법적이고 비위생적인 진료, 진료 미실시 등으로 국민 건강상의 위험을 초래한 점,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재정 건정성을 저해한 점 등을 이유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시했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 광주 어등대교 보름만에 또 파손 사고

### 교량 이음장치 부품 떨어져...출근길 교통 통제 대혼잡

광주시 광산구 어등대교에서 교량 이음장치가 또 파손됐다. 지난달 16일 같은 위치에서 교량 이음장치 파손 사고가 난 지 보름만에 똑같은 사고가 난 것이다.

광주시와 광주광역시청 등에 따르면 1일 오전 8시께 광주시 광산구 어등대교 2차로에서 교량 이음장치인 '신축(伸縮)이음장치'의 부품이 떨어져 나가는 사고가 발생했다.

신축이음장치는 교량과 교량 사이를 잇는 철제 구조물로, 틈이 모양으로 맞물려 있는 형태로 도로 상에 드러나 있다. 교량 상판이 주변 기온 등 환경

변화에 따라 늘어나거나 줄어들더라도 양 교량을 안전하게 붙잡아 주는 역할을 한다.

이날 사고 현장에는 철제 부품(1.5m×0.5m)이 통째로 떨어져나가 도로 위를 나뒀다.

광주시는 어등대교에 크고 무거운 차량이 자주 오가면서 신축이음장치 콘크리트(후타재)와 부품 간 용접이 떨어져나간 것으로 분석했다. 특히 어등대교에 화물차 등 대형 차량이 빠른 속도로 통행하는 경우가 많아 마모가 가속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사고 직후 오전 8시께부터 시·경찰은 어등대교 2

차로를 폐쇄하고 교통을 통제하면서 인근 도로까지 대혼잡이 이어졌다. 오후 늦게까지 통제가 이어지자 경찰은 유도봉과 안전지대를 활용해 추가 차선을 확보하고 교통 흐름을 조정하는 등 조치를 했다.

신축이음장치를 다루는 전문 업체가 광주·전남에 없어 복구에 난항을 겪었는데, 충남 보령에 있는 업체에게 도움을 요청해 오후 7시께부터야 복구 작업을 시작했다.

지난달 16일 이곳에는 신축이음장치를 교량에 고정하는 콘크리트 일부가 떨어져나가 차량을 통제하고 복구공사를 진행한 바 있다. 이번 사고 지점과 불과 1m 떨어진 곳으로 차량 진행 방향과 차로는 동일했다.

다만 시는 이번 사고가 교량 전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한 만큼 교량 안전진단은 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 '벌떼 입찰 의혹' 호반·우미·대방건설 압수수색

### 공공택지 입찰 계열사 동원 수사

중견건설사의 공공택지 '벌떼 입찰'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본격적인 강제 수사에 착수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1일 오전 호반·우미·대방 등 3개 건설사 본사를 압수수색해 입찰 관련 전산 자료 등을 확보했다.

세 건설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발주한 공공택지 입찰에서 계열사를 동원해 낙찰률을 높인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경찰은 이들 건설사가 건설산업기본법과 주택법에서 금지하는 사업자 명의대여를 했는지도 수사하고 있다. 입찰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와 같은 '유령 계열사'를 동원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올 10월 벌떼 입찰로 공공택지를 낙찰받은 것으로 의심되는 일부 건설사를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경찰은 이 의혹과 관련해 수사 대상이 된 건설사 계열 업체 전·현직 대표 등 10여 명을 피의자로 입건한 것으로 전해졌다. /연합뉴스

**70** 광주일보 70년  
호남 최대 부수  
열독률 호남 1위

## 토지매매

### 광주광역시 남구 월산동

963 - 9번지	264.8㎡
963 - 10번지	254.2㎡
963 - 11번지	225.8㎡
963 - 12번지	195.0㎡

- 합 계 -  
**939.8㎡ 구 (284.3평)**

**매매가 71억원**

일반상업용지 용적율 1,100%  
사옥 및 메디컬센터 신축 부지 적합

**(주)GK파트너스 컨설팅 010-3625-1362**

### 주목성 뛰어난 단시간내 **최대의 광고효과**

**1일 150회, 월 4500회** 송출


국내 최고 고품질 **LED플라자** 최고화질

- 1. 광주의 중심, 아시아문화전당지역 최대의 유동인구 밀집지역**  
-옛전남도청 앞, 금융가, 관공서, 아파트, 상가 밀집, 주목률 최고!
- 2. 문화전당지구, 문화광장 이벤트 지역 인구 집중**  
-광주동구 문화전당 중앙부에 위치하며 통행량 및 이동의 중심에 위치  
-아시아문화전당 앞 총장로 입구 공연 이벤트 등으로 인구 유입 최대
- 3. 높은 광고효과**  
-문화전당, 구도심, 아시아문화전당, 금융가, 광주광역시 최고 중심지로 이동차량 및 이동인구가 가장 많은 곳  
-평일 출·퇴근 및 주말에 인구 유입되고 문화를 접목한 이벤트 풍성하여 광고 노출의 극대화
- 4. 국내외 및 관광객 유입으로 인한 광고효과**  
-아시아문화전당 중심지로 국내·외 외국인 관광객들이 이동하는 최적의 장소
- 5. LED전광판의 특징**  
-반복표출을 통한 메시지 전달의 극대화, 광고주의 필요에 따라 표출 내용의 신속한 변경

**광고문의. 062)220-0531**

## • 임산부 배려 캠페인 •

### 10월 10일은 "임산부의 날"



임산부는 임신기간 호르몬의 변화로 입덧과 구토, 과다한 피로감, 우울감 등 몸과 마음이 힘들 수 있으며, 특히 걸로 구분어 잘 안되는 임신 초기에는 무리한 활동이나 스트레스가 유산의 위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 임산부배려, 우리 모두 함께해요

- 임산부 배려식은 비워두거나 양보하기
- 줄서기를 하고 있다면 임산부에게 순서 양보하기
- 모두에게 해로운 담배, 임산부에게는 특히 더 조심하기
- 직장에서 임산부에게 무리한 근무와 스트레스는 금물
- 출산 전·후 휴가와 단축근무 신청은 당연한 권리

